

테마가 있는 섬이야기

섬은 생명이다.
섬은 그리움이다.
섬은 삶이다.
섬은 변화한다.
섬은 문화다.

남 해

South Sea of Korea

NIMO 해양생태총서 3권

테마가 있는 섬이야기

South Sea of Korea

남 해

정부간행물 번호

11-1611000-001486-01

과학원간행물 번호

PR-2011-ME-001

테마가 있는
섬이야기

남
해

바다빛
하늘빛
하나되는 그곳,

남해의 섬들은
섬이 섬을 감싸고
그 섬이 또 섬을 감싸고 있다.
그러하기에
먼 바다로부터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남해의 섬들은
수 많은 양식장들을 보호하고 있다.

섬

이 섬을 품고
그 섬이 또 다른 섬을 감싸는
이곳 남해에는
극한의 아름다움이 있다



남해

태고적부터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견디고,
자연 어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발/간/사

바다는과거부터 우리에게 풍요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삶의 보고의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우리의 식생활 뿐 만 아니라 지친 삶에 휴식을 제공하는 휴식처로 각종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의 장소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는 기후변화의 조정자의 역할과 육상 기원 오염물질의 정화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바다는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수온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열대성 어종 및 플랑크톤의 출현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극지방에서 시작한 해양산성화 문제는 향후 우리해역의 양식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연안역은 유류오염과 인공구조물 건설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와 냉수대, 저염분수, 적조 대형해파리 출현, 빈산소 수괴 등 다양한 해양 현상들에 의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해양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안정적인 국가 식량공급과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나아가 해양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연구는 우리의 미래와 삶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해양 변화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해양생태계 기본조사(National Investigation of Marine Ecosystem, NIME)'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은 남해 서부해역과 남해 동부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자료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기본 조사에서 얻어진 해양 지식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NIMO 해양생태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남해의 특색에 맞는 '섬'을 테마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200개의 섬이 있으며, 그 중 남해에는 약 2,500개의 섬이 있어 우리나라의 섬의 약 80%가 남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해에 위치한 섬들은 태고적부터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견디고, 자연 어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섬을 '생명', '그리움', '삶', '변화', '문화' 등 5개의 테마로 나누어 섬의 아름다움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남해를 대상으로 힘든 조사를 마다하지 않고 과학적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온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사업의 참여 연구진과 본 총서의 발간에 힘써준 집필진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이 남해, 우리나라의 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정 중 환

섬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섬들은
그들만의 역사를 가지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바다와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바다는 위치에 따라 차별된 환경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남해를 이루는 많은 섬들은 태풍과 거친파도로 부터 연안어장을 보호하고, 그 절경과 청정함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섬들은 그들만의 역사를 가지며 인간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해상교역의 중심지로, 어업활동의 전진기지로, 관광의 중심지로 변화하였습니다. 최근 인간의 활동은 섬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화는 젊은 섬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섬의 분교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노인들만이 지키는 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폐가만이 섬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리를 위해 섬과 육지를 잇는 연육교들은 늘어나 도심의 영향이 섬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느림의 문화를 가진 섬은 관광과 주민의 소득을 위해 개발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천연의 고유환경을 간직했던 섬들은 이제 인간의 개발로 파괴되고 그 서식지에 살아가던 섬생물들은 멸종되거나 다른 종으로 천이되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섬환경의 변화는 섬의 생물상을 변화시키고, 기후변화는 아열대성 종의 우점서식지화 되고 있습니다. 섬 주변 해양생태계는 인간에 의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향을 덜 받은 섬에서는 아직 보호대상생물들이 서식하고, 다양한 생물군집의 서식지가 발견되는 등 아직도 신비를 간직한 섬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는 해양생태계의 장단기 변동을 파악하고 해양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과학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는 일반 국민들과도 과학적 자료를 공유하고 바다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본 조사사업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남해안 섬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테마가 있는 섬이야기, 남해”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과학적인 결과물은 일반대중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 없었던 점들을 감안하여 테마별로 사진, 시들로 쉽게 꾸며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인 조사, 연구 결과물들이 일반대중에게도 쉽게 이해되어 과학과 일상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서가 그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김 영 만

섬

은 생명이자 삶의 터전이다
많은 변화속에
묵묵한 외로움을 이겨내며
그 곳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있다

테마가 있는 섬이야기 | 남해

발간사 [국토해양부 장관]	07
인사말 [국립수산물자원장]	09
I. 섬	13
II. 우리나라의 섬들	14
1. 우리나라의 섬들	
2. 남해안의 섬들	
3. 남해안 섬의 재발견	
III. 남해안 섬들의 의미	
1. 섬은 생명이다.	30
2. 섬은 그리움이다.	82
3. 섬은 삶이다.	108
4. 섬은 변화한다.	152
5. 섬은 문화다.	188
IV. 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6

바닷가에서

오세영
(시인, 서울대 국문과 명예교수)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저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지는 일몰을 바라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저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 있는 섬을 바라보아라.
홀로 견디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저기 있다



I. 섬

섬의 사전적 의미는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육지의 일부'로 정의되어 있으며 동의어로는 도서(島嶼), 주도(洲島)가 있다. 섬은 대양·바다·호수·하천 등지에서 나타나며, 섬들이 무리를 이루면 군도(群島)라고 한다.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섬은 대륙성과 해양성으로 나뉜다. 해양성 섬은 독도나 울릉도처럼 깊은 바다 한가운데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해분(海盆)에서 해면 위로 솟아 있는 섬이고, 대륙성 섬은 대륙붕 가운데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세계의 큰 섬들은 대부분 대륙성에 속한다.

대륙성이 되었던 해양성이 되었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섬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 바다는 대부분의 육상 생물들에게는 공간적인 확산의 장애요인이 되지만, 일부 생물들에게는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바다를 통해 이동한 생물들이 섬이라는 새로운 서식지에 정착했을 경우, 고립된 환경에서 새로운 특징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때문에 오랜 기간 바다 위에 고립된 섬들은 인접한 섬들의 동물상이나 식물상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때로는 이런 차이점을 통해 섬의 기원을 추론할 수도 있다. 또한 생물들의 서식 특성에 따른 지리적 구분을 지도에 표시할 때, 동물상과 식물상 유형의 경계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섬은 바다 위에 고립되어 마치 단절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물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II. 우리나라의 섬들

1. 우리나라의 섬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안선의 총연장이 모두 1만 7,269km이다. 육지부가 8,237km, 도서 해안이 9,032km이다. 동해안은 전반적으로 지반이 솟아올라 있고, 산맥이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달리고 있어 해안선이 단조로운 용기(이수) 해안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서해안과 남해안은 반도·만·섬 등이 많아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특히, 남해안은 해안선의 거리가 직선 거리의 8배를 넘고, 섬이 많은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해안선이 복잡한 것은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뺀 산지가 침강했거나 해면이 상승하여 구릉지나 산줄기는 섬 또는 반도가 되고, 낮은 곳은 물이 들어와 만이 된 침수 해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라남도 해남에서 동쪽 부산 송도까지로 직선거리는 225km이나 해안선은 8.8배인 1,980km나 된다.

옛 행정자치부의 '2001 한국의 도서현황', 국립해양조사원의 '2004 국립해양조사원 조사결과' 등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서는 3,215개소로 총면적은 3,824km²이다. 이 중 화산으로 생긴 섬은 독도, 울릉도, 제주도이며, 그 밖의 섬들은 산맥이 물속에 잠겨서 높은 부분이 물 위로 올라와 섬이 되어 산맥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가장 큰 섬인 제주도(1,840km²)와 거제도, 진도, 남해도, 강화도 다섯 섬을 '5대도'라 부른다. 이 외에 크고 작은 섬이 동해에 169개, 남해에 2,244개, 서해에 892개 있다.

2. 남해안의 섬들

남해의 범위는 조사나 연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립수산물과학원(1979, 한국해양편람)과 해양수산부(1997)는 동해와 남해를 울산과 일본 이즈모를 이은 직선(대한해협)으로 정했다. 서해와 남해의 경계는 진도 서단과 차귀도를 이은 직선으로, 동중국해와 남해의 경계는 우도에서 나가사키 후쿠에 섬 남단을 이은 직선으로 정의하였다.

남해안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절경 덕분에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자연공원법의 보호를 받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왔다. 이 때문에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섬 고유의 생활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다.

썩빛 바다와 더불어 풍광이 너무나 아름다운 다도해는 각기 다른 역사와 사연을 지니고 있다. 경상남도 거제 지심도에서 전라남도 여수오동도에 이르는 청정해역은 크고 작은 100여개의 섬들이 오목조목 아름다운 해안선을 이루며 희귀종을 비롯한 해양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와 전설이 많다. 환경부가 지정한 특정도서의 하나인 소치도는 멸종위기동물인 매가 서식하고, 노도에는 '구운몽'을 집필한 서포 김만중 선생의 마지막 향기가 서려있다. 이밖에 희귀 아열대 식물을 비롯해 크고 작은 740여종의 식물로 조경을 해놓은 외도, 쭉 뻗은 동백나무 터널이 인상적인 지심도, 기암석벽으로 이루어진 해금강, 이국적인 언덕 위의 하얀 등대 소매물도, 자갈밭과 모래밭을 동시에 가진 해수욕장인 비진도, 한산대첩의 성지 한산섬 등 아름답고 유서 깊은 섬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여수시 돌산면에서 진도 연안 해역에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400여 개의 섬들이 있다. 서구 열강들이 해양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앞다투어 차지했던 슬픈 등대섬 거문도, 남해안 최남단의 비경을 가진 백도, 천혜의 포구를 가진 '나라의 섬' 나로도, 윤선도가 지은 '어부사시사'의 배경이 된 '문학의 섬' 보길도,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각종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각광 받는 청산도 등이 있다.

3. 남해안 섬의 재발견

국토해양부의 남해안 해양생태계기본조사 결과 가거도, 소화도, 남형제 섬은 해양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가거도는 국토의 최서남단에 있으며 우리나라 갯바위 5대 지역의 하나다. 기암괴석과 후박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사람이 살만하다 하여 가거도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위낙 먼 곳에 있는 섬이라 '가도 가도 뱃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 섬'이라 불린다. 가거도 패총이 지방기념물 제130호로 지정됐고, 멸치잡이 노래가 지방무형문화재 제22호, 구굴도 바닷새류(빨쇠오리, 바다제비, 습새) 번식지가 천연기념물 제341호로 지정됐다. 풍랑이 일거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인근 동중국해에서 고기를 잡던

가치 있는 관광자원인 가파른 암벽으로 구성된 가거도의 해안선 일부(왼쪽 사진)와
가거 1구의 몽돌해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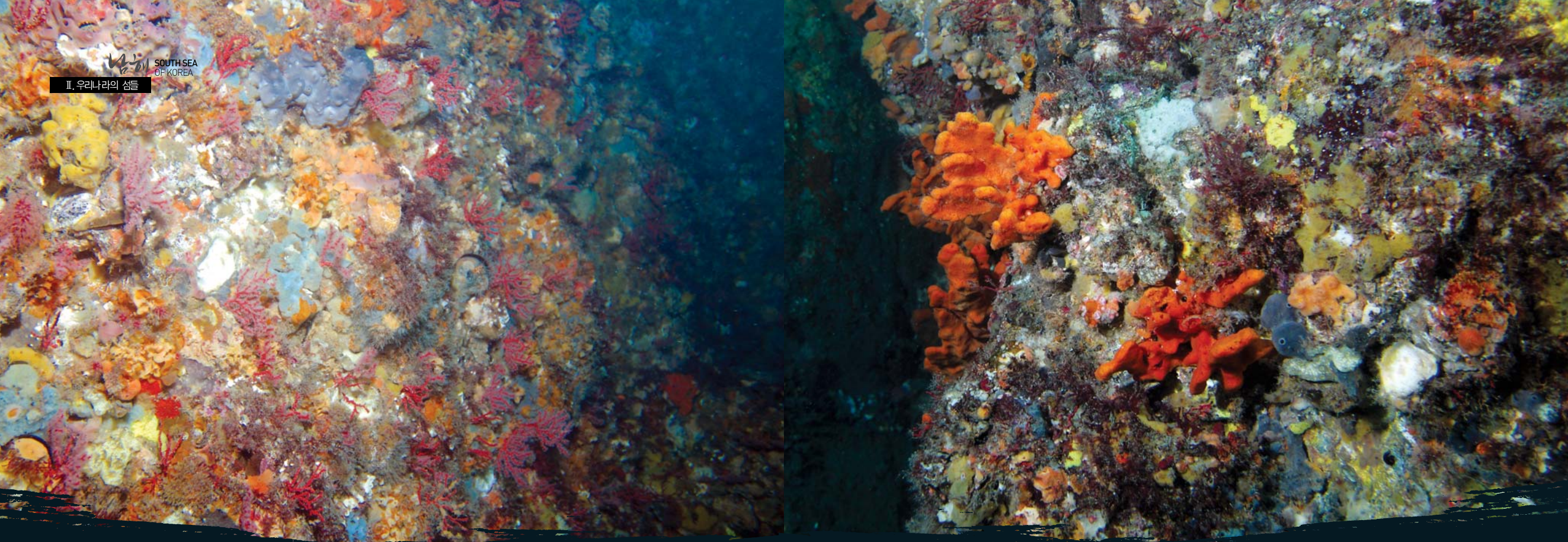


어선들이 가거도로 피항한다. 폭풍우를 피해 몰려온 많은 배들로 바다 위의 생선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중국 어선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거도는 서남해역의 어업전진기지이자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수심이 깊고 바다 밑이 대부분 암초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낚싯대를 드리우기만 하면 어디든 바로 입질이 온다. 이번 해양조사 결과 가거도 연안에는 아열대성 생물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면류의 종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거도에는 신안군에서 가장 높은 산(독실산)이 있어서 현재 작은 등산로위 사진. 그 사이사이에는 후박나무 군락 및 다양한 육상 군락의 밀림지대(오른쪽 페이지 사진). 가거 2리로 넘어가는 도중에 나타나는 절벽 끝의 소규모 자생 나무 군락(아래 사진).





▼ 가거도 수중 생태계의 구성 중 가운데 소라(아래오른쪽 사진), 감태(아래 왼쪽 사진), 보석말미잘(아래 중간 사진) 등은 가거도가 우리나라 주변 난류 생태계의 연결 고리임을 나타냄.

▲ 우리나라 바다 중 가장 다양한 해면류(왼쪽 사진)와 피복성 저서 무척추동물(오른쪽 사진) 군집 특성이 있는 가거도 수중 생태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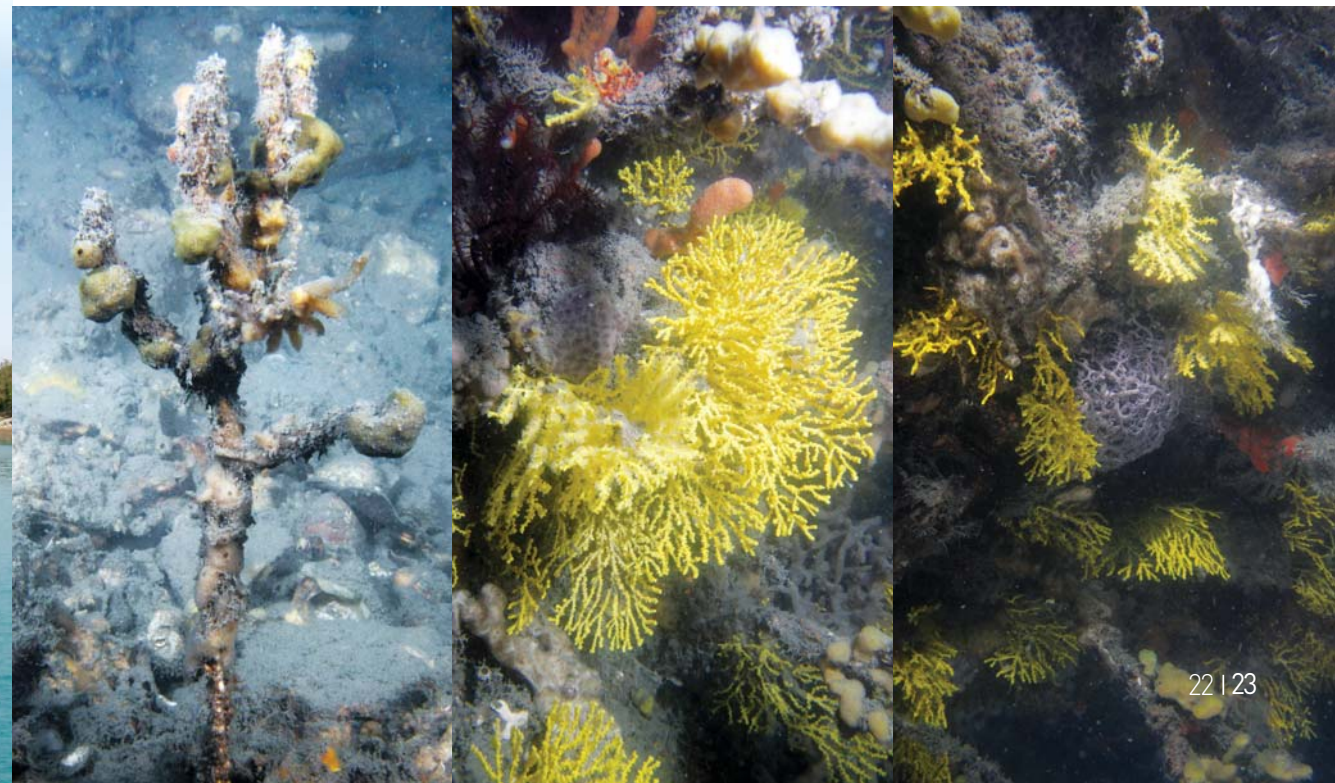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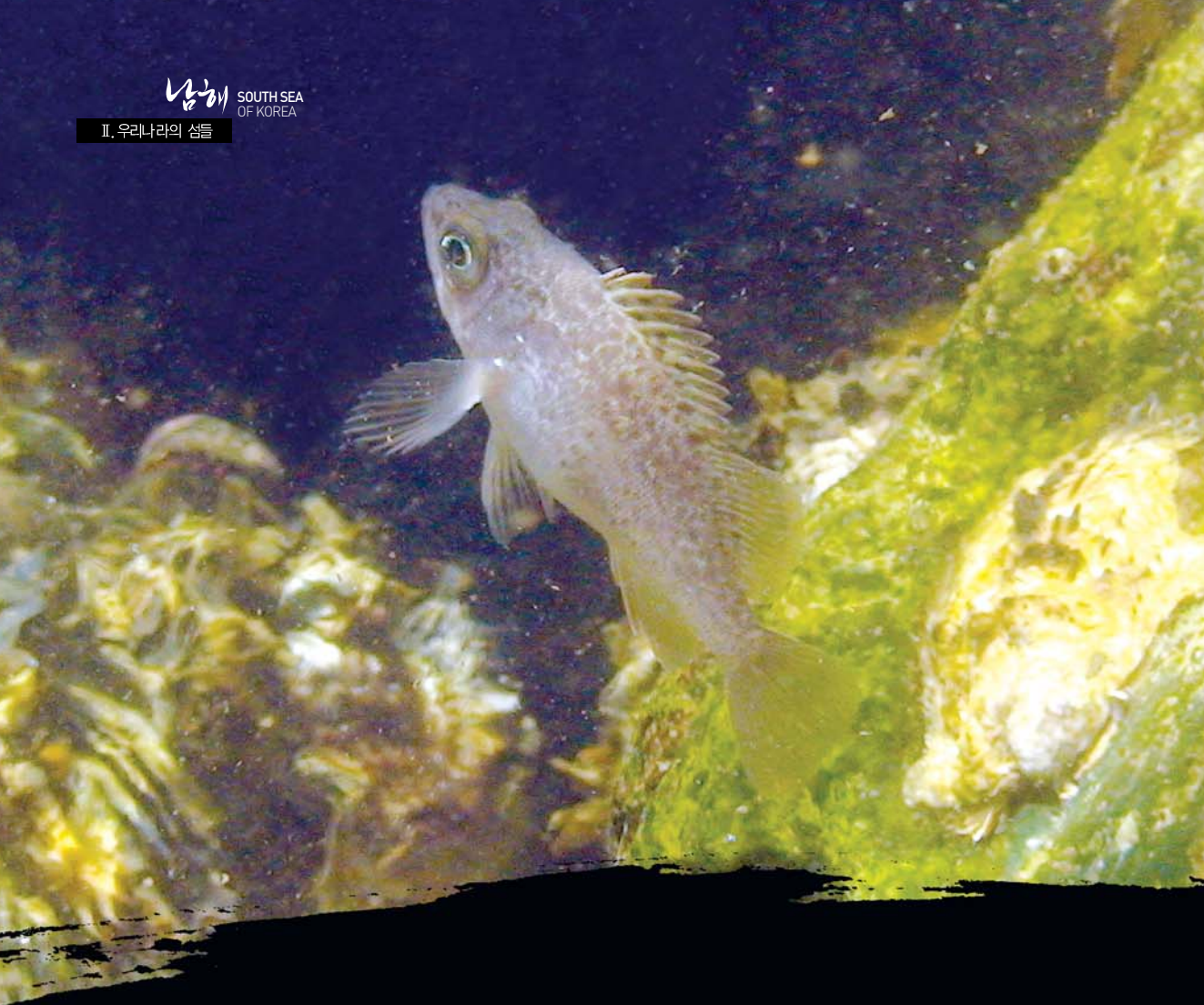
▲ 소화도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과 해안선 일부(동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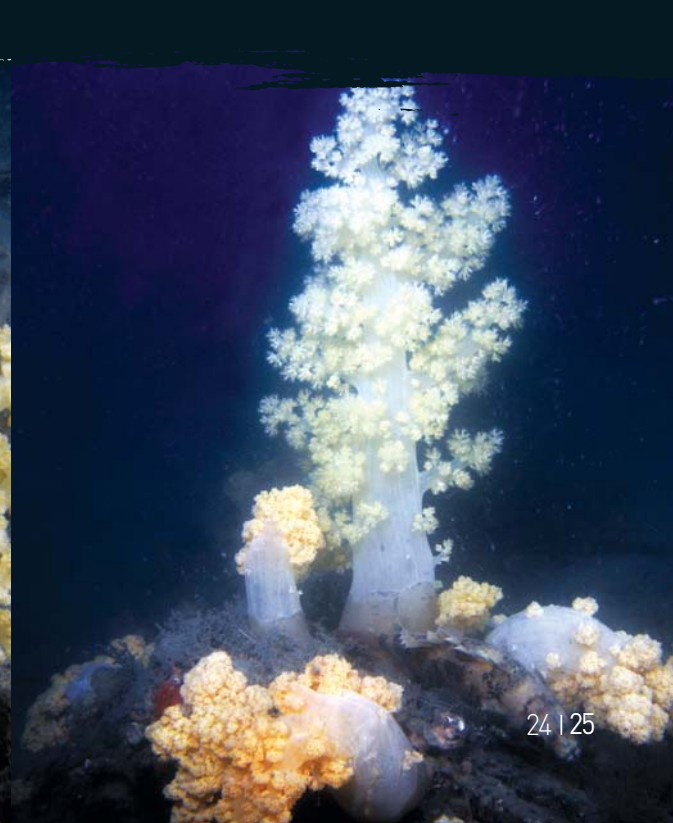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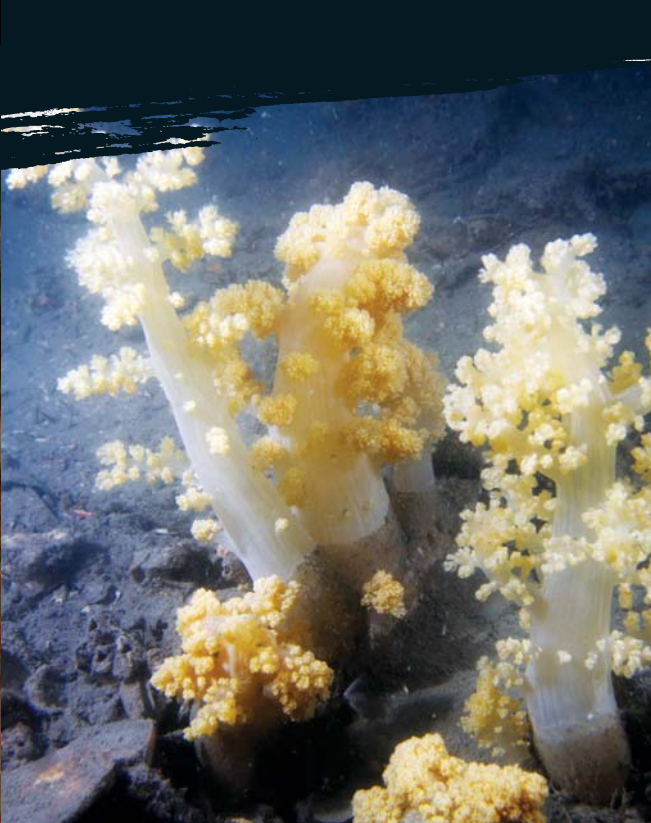
▲▼ 서관(棲管) 속에서 살아가는 사철미아갈족털갯지렁이의 서관(들) 모습과 이 종의 서식지 환경(위쪽사진, 아래왼쪽 첫번째사진). 사철미아갈족털갯지렁이와 함께 소화도 임반 조하대 수직절벽에서 우점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바늘신호류의 군집 모습(아래오른쪽 2장 사진).

소화도는 완도군에 속하는 섬으로 금당도와 금일도 사이에 있다. 부근에 신도·충도 등이 있으며, 인근의 대화도와 중화도에는 1911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사람이 살았으나, 지금은 어느 섬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상태다. 저녁노을이 질 때 인근 신흥리에서 바라보면 섬의 모습이 마치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화도(꽃섬)’라 불린다. 섬 모양이 남북으로 긴 형태로 해안의 대부분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규모 해식절벽과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이 오목해지는 풍화혈이 있어 경관이 특이하다. 2009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 결과 소화도 인근 해역에는 해양생물이 총 1,798종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버들갯지렁이류 등 대형 저서동물이 670종으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어류도 서대류, 장갱이류, 볼락속 등 3종이 발견되었다. 이 중 장갱이류는 전 세계적으로 2종만 보고되었으며, 대규모 연산호 군락지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소화도 수심 15~25m의 해저에서 발견되는 연산호 군락지 구성 종(種인 침해맨드라미의 개체 모습(위쪽 사진)과 군락지 일부 전경(아래쪽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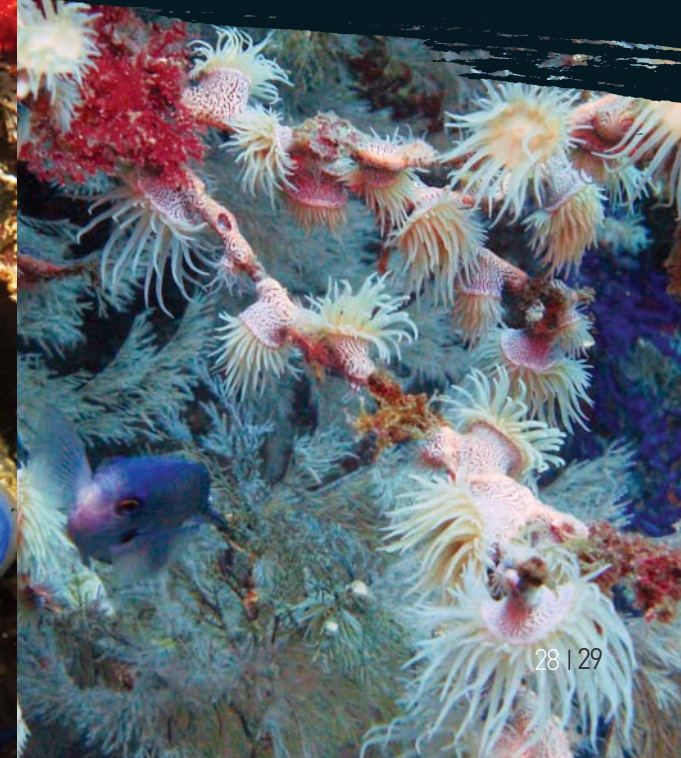
남형제섬은 부산 다대포항으로부터 약 19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산 최남단의 무인도다. 남형제섬은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2004년 1월 3일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섬 전체가 특정도서로 지정됐다. 남형제섬의 암반 조하대 군집의 생태특성은 부산 인근 해역에서는 유일하게 아열대 생태계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산호류(중산호류 포함)와 해면류 그리고 잘 발달된 해조군락(대황 및 감태)등이 분포하며 다양한 어류와 무척추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열대 바다의 화려한 생물상을 보여주는 남형제섬의 임반 조하대 군집모습.

▲▼ 남형제섬 임반 조하대에서 출현하는 화려한 색상의 깃갯고사리류(위 사진)와 담홍말미잘(아래 오른쪽) 그리고 푸른테만붕멍게(아래 왼쪽부터)의 모습들



Ⅲ. 남해안 섬들의 의미

남해의 섬, 섬, 섬

국토해양부 · 국립수산물과학원

섬은 생명경이다

VITAL

섬의 땅 위에,
섬의 가장자리에,
섬의 바다 속에,
이 모든 곳에는
생명이 숨 쉬고 있다.

南海 島 島



형제 섬

박상건 (시인. 섬문화연구소장)

전생에 무슨 인연 있었을까
동백꽃 피고 지며 그리움으로 깊어간 바다에
두 개의 섬 어깨 나란히 곁고 있다

조약돌은 파도에게 씻겨 마음 다스리고
파도는 제 가슴 올려 하얀 포말을 흔든다
터지는 함성 참깨처럼 흩날리는 햇살들

이제 행진이다
하늘엔 갈매기, 바다엔 부표들
더 이상 떠돌지도 흔들리지도 말자
눈보라 속 꿈꾸는 복수초처럼
섬 기슭 동백꽃 생꽃 모감지로 떨어져도 이 악물고 잘자

산다는 건 두 가슴이 한 마음으로 집을 짓는 것
하 맑은 한려해상 한결같이 출렁이는 섬
오늘도 두 섬 의초롭게 어깨 곁고 있다.

섬은 생명이다

섬에는
참 많은 생명이
산다.

섬의 땅 위,
섬의 가장자리,
섬의 바닷속,
이 모든 곳에는
생명이 숨 쉬고 있다.

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생명체는 염소다.

가파른 절벽이나 들판에
염소떼가 노니는 모습을
대부분의 섬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섬을 벗어나
어디로 도망칠 곳도 없는 섬은
염소를 방목하기에
최적의 장소.

해안절벽을 여류롭게 뛰어다니는
염소들이야말로
섬의 터줏대감이자 진정한 주인이다.

섬은 **생명령이다**



바다속
모든곳에
생명이
숨 쉰다.



섬은

망망대해를 날아다니는
바닷새들의 안식처.

거제 홍도에서 만난
괭이갈매기는
절벽 틈새 속에 알을 낳는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껍질을 깨고 나온다.

어미가 외출 한 사이
어린 괭이갈매기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열린 머리를 틈새속으로 숨긴다.



바다속
모든곳에
— 생명이
숨 쉰다.

전남 우이도

어느 어촌 마을
치마 아래,
목에 보송보송 솜털을 한
제비들이
먹이를 찾아나선
어미 제비를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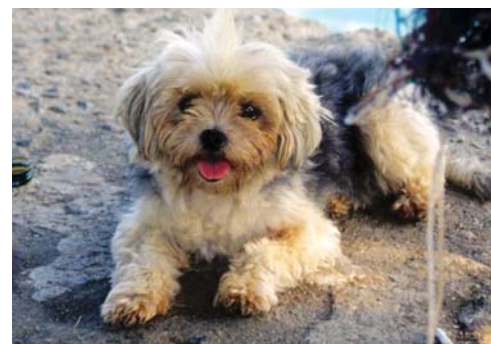
섬은
새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경이의 공간이다.

섬은 생명령이다

섬에서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다.

고생대의 티라노사우루스*부터
선창을 지키는 삽살개,
그리고
섬사람들의
부엌까지 찾아드는 도둑개까지

섬은
참 다양한 생명들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



섬은 **생명**이다

섬은
참 다양한 생명체를 품으며
살아가고 있다.



1) 여수 사도



섬이 섬을 품고
그 섬이 또 다른 섬을 감싸는
그 곳에는
극한의 아름다움이 있다.

바다로 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풀과 나무들은
육지의 그 것들처럼
햇빛을 향해 당당하게
위로 쪽쪽 뻗질 못한다.

대신
튼튼한 뿌리와 줄기에
겨우 잔가지 몇 개만을
뽕뽕하게 옆으로 펼치며
생명을 유지할 뿐

섬은
생명력이다



섬의
생명력은 강인하다.

모진 바람과
한 여름 피약벌에
섬의 바위는 뜨겁게 달아오르겠지만
그 틈새에는
풀이 자라고
꽃이 피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섬의 구석구석에는
소금기를 머금고
달려오는 거친 바람(風)에도
굳세게 살아가는
풀들이 있다.

여수 사도항
자갈 바닥에서 발견된
밋밋한 바람이 살랑이는 물의 흠에서는
강인한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달려오는
바람(風)에도
굳세게 살아가는
풀들이 있다.

섬은 생명이다

이들은
소금기 머금은 짙바람을 이기며
생명을 유지해 간다.

섬의 해변,
그곳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있다

바람에 쉽게 날리는
작은 모래 알갱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해 간다.

이들의 끈질긴 생명력이 있기에
섬의 모래해변은
바람에 사라지지 않고
그나마 자신을 유지하며
모래해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섬은 **생명력**이다

온통 바위로 이루어진
섬에는
거기에 적응된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살고 있다.

갯바위 틈에는
무엇이든 먹어 치우는
바위게가
파도를 피해 바위틈에 숨어 있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면
밖으로 기어 나와
파도에 밀려온
찌꺼기나 다른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한다.

섬은 생명력이다



섬에 들어섰을 때
해안가에서
맨처음 만나는
갯강구

갯강구는
그 만큼
섬을 터전으로 하는
가장
흔한 생명체다.

물론,
육지의 모든 해안가에서도
갯강구를 만날수 있지만,

고즈넉한 섬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이들의 모습은
섬을
더욱 섬답게 만든다.

달랑게와 엽낭게들은
고운 모래입자들 사이 또는 표면에 있는
작은 유기물 조각들이나
돌말류들을
골라 먹는다.



엽낭게가 먹이를 먹는 모습

이 과정에서
게들이 내놓은 점액질에
둥그랗게 뭉쳐진
모래알갱이들이
구멍 주변에 남겨진다.

섬은
생명이다

풍성사구¹⁾ 아래
드넓은 모래사장은
게들의 천국이다.

그 곳에 사는
달랑게와 엽낭게는
모래사장 곳곳에
자신들이 살
구멍집을 짓는다.

물이 빠진 모래사장
달랑게와 엽낭게의 구멍덕분에
우이도의 모래사장이
건강하게 유지된다.

이들이 파 놓은 굴을 통하여
신선한 바닷물과
바람을 타고 흐르는 공기들이
모래바닥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1) 풍성사구: 전남 우이도

물이 빠진 모래사장
달랑게들의 집게발이
바쁘게 움직인다.

자신들이 살
구멍을 새롭게 파고
손질하는 이들이야말로
섬의 모래 해변이
썩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 지킴이' 들이다.

섬은
생명력이다



바다속
모든곳에
생명이
숨 쉰다.

우리나라에서
달랑게가 가장 많이 사는
우이도 모래사장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작은 알갱이들은
달랑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굴을 파거나,
모래 입자들 사이의
유기물 찌꺼기나
작은 미생물 등과 같은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섬이
흔적들이다.

모래 해변에서
이들 생명체가 존재하는 한
섬의 모래 해변 생태계는
항상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섬을 둘러싼 바다¹⁾는
무수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곳이다.

수십, 수백 종류의
바다 생명들이
춤춤하게 얹여 있는
먹이망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1) 부산 남항제섬

바다속
모든곳에
— 생명이
숨 쉰다.

섬은 생명력이다



사진 | 김영대

대부분

바다 생명들은
섬사람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점차 바다 생명들이
감소해 간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바다 생명들이 늘어 나도록
섬사람들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시 풍요로워 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남해의 섬 주변
바다 속에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미역이
숲을 이루는 곳도 있다.

미역의 엽체는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되고
미역의 귀는
미역의 생식기구로
다음세대를 위해
잉태와 번식을 멈추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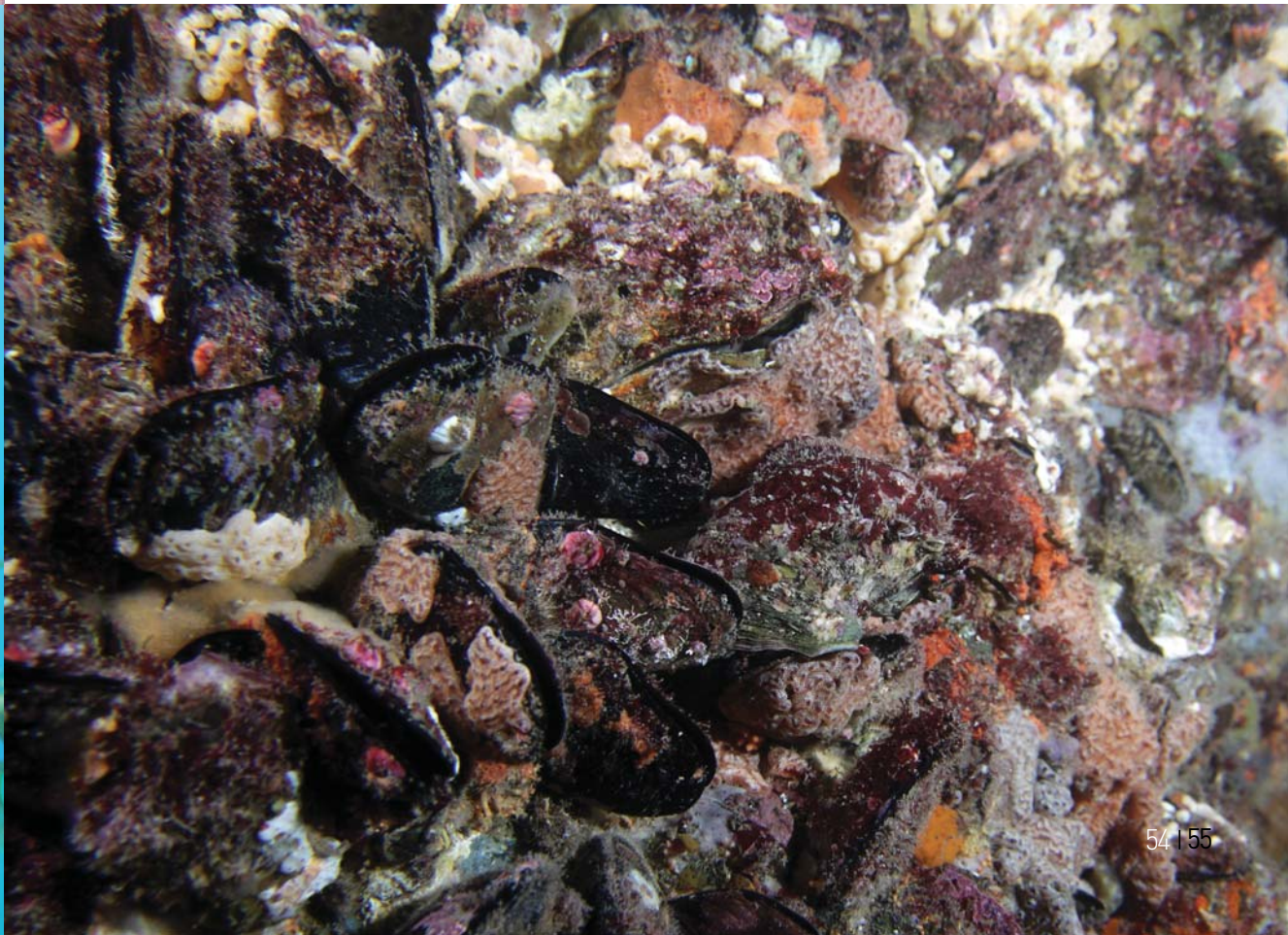
▲ 번식을 위한 포자주머니



섬은
생명력이다

먼 옛날
섬의 끝자락
갯바위 물속에는
홍합들이
지천으로 붙어 있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옛날 이야기로만
전해지지만
그래도
먼 바다
가운데 있는 섬들에는
아직도
홍합이 중요한 수산물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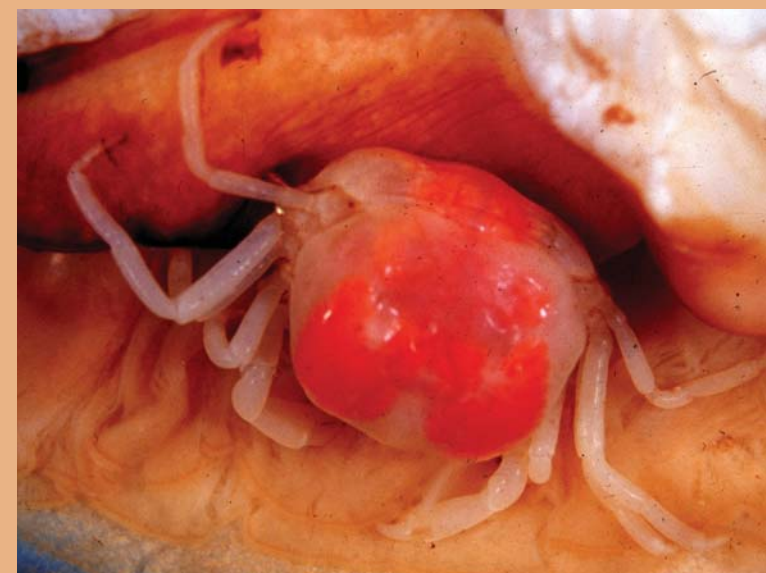


섬은 생명경이다

섬은 생명이 공존한다.
속살이끼를
다정하게 품고 있는 홍합처럼

섬은
온몸으로
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품어 함께 살아간다.

섬에서,
물속에서
많은 생명들이
탄생하고



섬은

바다 생물들의
좋은 안식처다.

육지 가까운 연안에서 부화하여
성장한 어린 고기들이
남해 먼 바다 은신처인
섬주변으로 몰려들어
더욱 더크게 성장한다.

가을철이면
섬의 바다 속에서는
거의 다자란
물고기 떼들로
풍요롭다.

그 중
불볼락도
섬사람들의 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섬은
생명령이다



섬의 바다 속에서는
거의 다자란
물고기 떼들로
풍요롭다.

이른 아침

그물 가득 잡힌 멸치를
그물에서 분리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섬사람들은
매일매일을
바다가 품고 있는
생명들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섬은 생명이다



바다속
모든곳에
— 생명이
숨 쉰다.

하루의 자맥질

얼마 되지 않는 어획물이지만
해녀(海女)들에게는
값진 노력의
대가다.

섬이 품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섬사람들의
삶을 유지해 준다.

섬의 삶이
행복해서일까?
행복 해지고 싶어서 일까?

어느 섬 선창에 매여 있는
'행복' 호의 모습에서
섬의 바다속
풍요로운 생명체들이
늘 풍족하기를
기원해 본다.

풍요로운 생명체들이
늘 풍족하기를
기원해 본다.

섬은
생명경이다





남도의 대표 어종은
역시 '멸치' 다.

멸치잡이는
기본적으로
4척의 선단¹⁾으로 구성된다.
이 선단이
남해의
섬들 사이를 오고 가는
멸치 떼를 잡아 올린다.

섬과 섬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멸치를 잡는
어획선들과 운반선들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섬도 활기를 찾으며
함께 꿈틀거리는 듯하다.

섬은 **생명력**이다

역동적인 모습에서
섬도 활기를 찾으며
함께 꿈틀거리는 듯하다.

1) 船團: 본선 운반선, 어획선 2척

섬은 생명령이다

섬사람들에게
바다는
물사람들의
논이며 밭이다.

섬 주변 바다에는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가 시설되어 있고,

섬사람들은
물사람들이 논과 밭을 가꾸듯
날이면 날마다 가두리에 나가
물고기들을 키운다.

바다속
모든곳에
— 생명이
숨 쉰다.

논과 밭을 가꾸듯
날이면 날마다
가두리에 나가
물고기들을 키운다.

가두리 양식장의
수확철, 그동안 정성들여 키운
조피볼락을 거둔다.

수확이 끝나면
양식장은 또 다시
어린 고기부터 기르는
작업의 반복.

그래도 풍어를 만끽한
오늘만큼은
농부의 가을 못지않게 행복하다.

섬은 **생명**이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담치*역시
섬의 앞바다에서
양식한다.

일년가까이
섬의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플랑크톤과 유기물 조각들을
먹으며 잘 자란 담치들이
이제 섬을 떠나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배에 몸을 싣는다.

1) 일부에서는 홍합이라 부르지만
사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대부분은 담치류임

남해의 섬들은
좁처럼 실 틈이 없다.

섬사람들은 자투리 바다일 지라도
탐치를,
명게를,
물고기를
그리고 굴을 키운다.

그래서
남도의 바다는
허안바다

섬은 생경이다

남해의 섬들은
좁처럼 실 틈이 없다.

‘남해의 섬’ 들
또는
‘남해 바다’ 와 함께
머리속에 그려지는
남해의 ‘하얀 바다’ !

사랑도 앞 바다,
굴양식장에
흰색 스티로폼들이 즐비하다.

넙치,
참돔,
조피볼락¹⁾,
굴,
멍게,
담치,
미더덕,
돛,
다시마...

남해의 바다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수산물들을
책임지고 있다.

섬은 **생명력**이다

‘남해 바다’ 와 함께
머리속에 그려지는
남해의 ‘하얀 바다’

1) 조피볼락 : 우럭

섬은 생명이다

남해 섬 바다의 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 굴 송고 생산
빈 굴 껍질에 줄을 꿰는 섬사람들

사진 | 김일봉



바다속
모든곳에
— 생명이
숨 쉰다.

사진 | 김일봉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남해 섬 바다의 굴도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년전 겨울
섬사람들은 이미 굴 양식을 준비한다.

빈 굴껍질을 줄에 꿰어
하안부표에 달아 바다에 드리운다.

그러면
바다속을 떠다니던
굴의 플랑크톤 유생이
여기에 부착한다.

이렇게
봄-여름-가을 동안 자란
‘바다의 우유’들은
겨울철에 수확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른다.

섬은 생명력이다

굴은

바다 위의

흰색 스티로폼에 매달려

그냥 자라기만¹⁾

하는 것은 아니다.

섬의 바로 앞

물이 나면

그냥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갯벌에서

조석에 따라

물에 잠기고

공기에 노출되는 과정²⁾을 거치며

굴은 더 강하게 자란다.

이렇게 살아남은 강하고

생명력 있는 굴만이

바다로 옮겨져

자라게 되는 것이다.

사진 | 김일봉



이렇게 살아남은 강하고
생명력 있는 굴만이
바다로 옮겨져

1) 수하식 양식

2) 단련: 조석에 따라 굴이 물에 잠기고 공기에 노출되는 과정

‘바다의 파인에플
바다의 붉은꽃’
멍게.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빼곡하게 매달린 멍게 양식장의
수하연¹⁾들은
보는것 만으로도 먹음직스럽다.

남해의
청정바다에서
자란 멍게들은
늦여름부터 수확되어
섬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섬은 생명령이다



사진 | 허영백

멍게 양식장에서 운반된 멍게들은
수하연에서 떼어낸 후
크기별, 신선도 별로
선별되어
판매하게 된다.

1) 수하연: 아래로 내려진 동아줄

사진 | 허영백

파도에 밀려오는
바다 쓰레기들
생명을 해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섬의 해변까지
밀려온
바다 쓰레기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섬의 생명들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섬은
생명령이다

사진 | 박진일

바다속
모든곳에,
— 생명령이
숨 쉰다.

사진 | 박진일

섬에 도착한 쓰레기는
육지에서 떠내려온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섬의 해변으로
밀려오는
많은 쓰레기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양식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흩어진 페스트로폼들 이다.

Ⅲ. 남해안 섬들의 의미

남해의 섬, 섬, 섬
국토해양부 · 국립수산물과학원

섬은그리움이다

LONGING

섬은
'섬'이기에 갖는
운명적
그리움이 있다.

南海 島島島



섬은 외로움이다

적막한 바닷가

송수권(시인, 순천대 문예창작학과 명예교수)

더러는 비워 놓고 살 일이다.
하루에 한 번씩
저 빨밭이 갯물을 비우듯이
더러는 그리워하며 살 일이다.
하루에 한 번씩
저 빨밭이 밀물을 쳐 보내듯이
갈밭머리 해 어스름녘
마른 물꼬를 치러는지 돌아갈 줄 모르는
한 마리 해오라기처럼
먼 산 아래서서
아, 우리들의 적막한 마음도
그리움으로 빛날 때까지는
또는 바빠바빠 서녘 하늘을 깨워가는
갈바람소리에
우리 으스스리도록 온몸을 태우며
마지막이 바닷가에서
깜깜하게 저물 일이다.

섬은 외로움이다

광활한 바다,
그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섬

광활한 바다,
그 한가운데 우뚝
서있는 섬

섬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외롭다.



섬을 떠나
바다에 나가면
섬보다
더큰 외로움을 느낀다.

바다에서
사람을 반기는 유일한 벗은
갈매기.

때로는
소란스러운 갈매기 날개짓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싫지 않은 갈매기들이
그물을 끌어 올리는
어민들 주변을 쉴새없이
맴돈다.

섬은 외로움이다

바다에서
사람을 반기는 유일한 벗은
갈매기.

섬사람들에게
태풍만큼 무서운 것이
안개다.

안개는
섬을 오가는
모든 뱃길을 막고
육지와 섬,
섬과 섬들의
왕래를 멈추게 한다.

무심코
섬을 찾은
물사람들에게는 섬의 안개가,
안개 낀 포구가
낭만일지 모르지만

바다에 나간
가족을 기다리는
섬사람들에게
안개는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

안개가 걷힐 때까지,
배가 포구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지옥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다.



섬은 외로움이다

안개가 걷힐 때까지,
배가 포구로 돌아올 때까지,

외로운 것은
섬과
섬사람만이
아니다.

섬의
허공을 가로지르는
팽이갈매기,

해변에서
먹이를 찾는
작은 바닷새 한마리...

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섬의 외로운 풍경속으로
묵묵히 들어간다.

섬은 외로움이다



외로운 것은
섬과
섬사람만이
아니다.

섬을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섬은 더욱 외롭다.

경제성장과
화려함을 쫓아
섬사람들이
물으로,
물으로 가버린
섬마을에는
그리움만 덩그러니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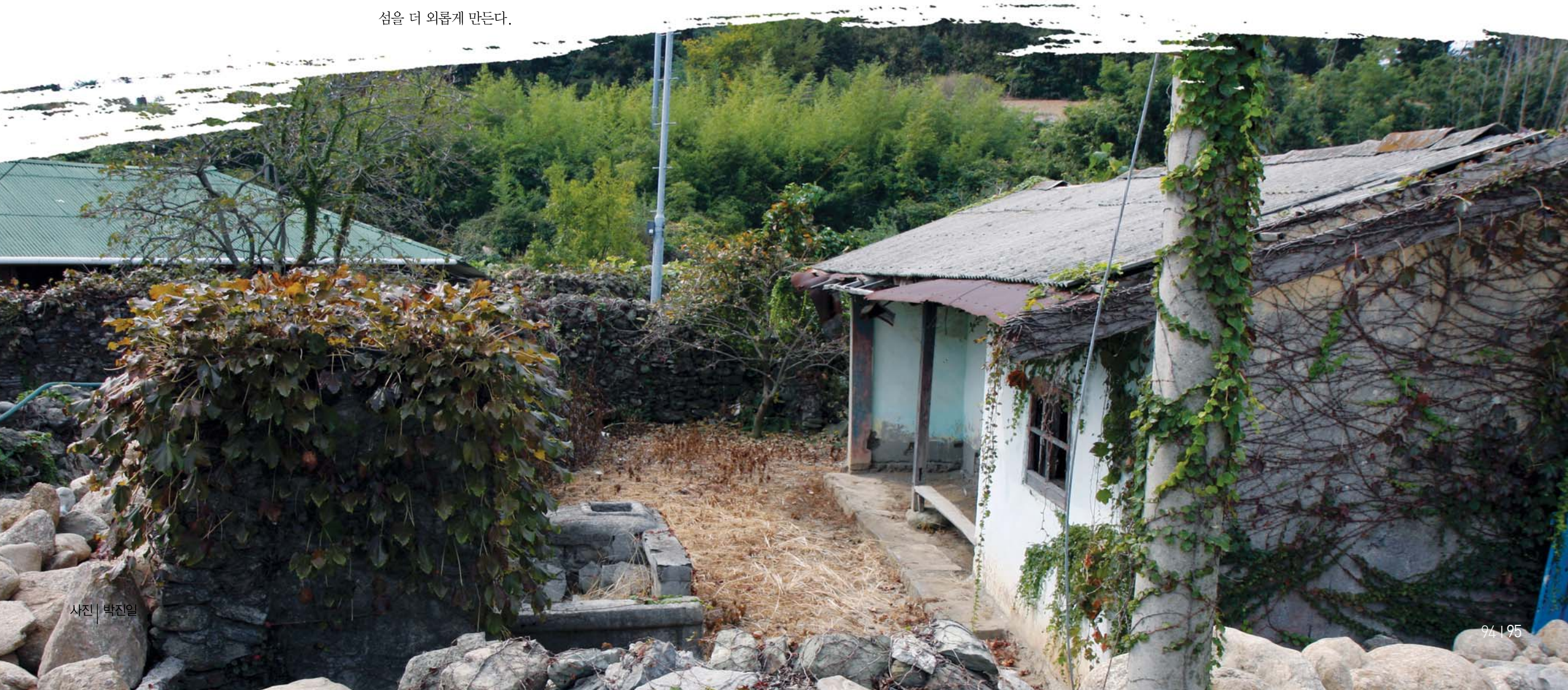
한때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났던
집은 이제 폐허가 되었다.

도시로 떠난 사람들의
추억이 유령처럼 떠도는
빈집을
섬을 더 외롭게 만든다.



섬은 외로움이다

물으로 가버린
섬마을에는
그리움만 덩그러니 남았다.



섬의 공동화 현상은
학교에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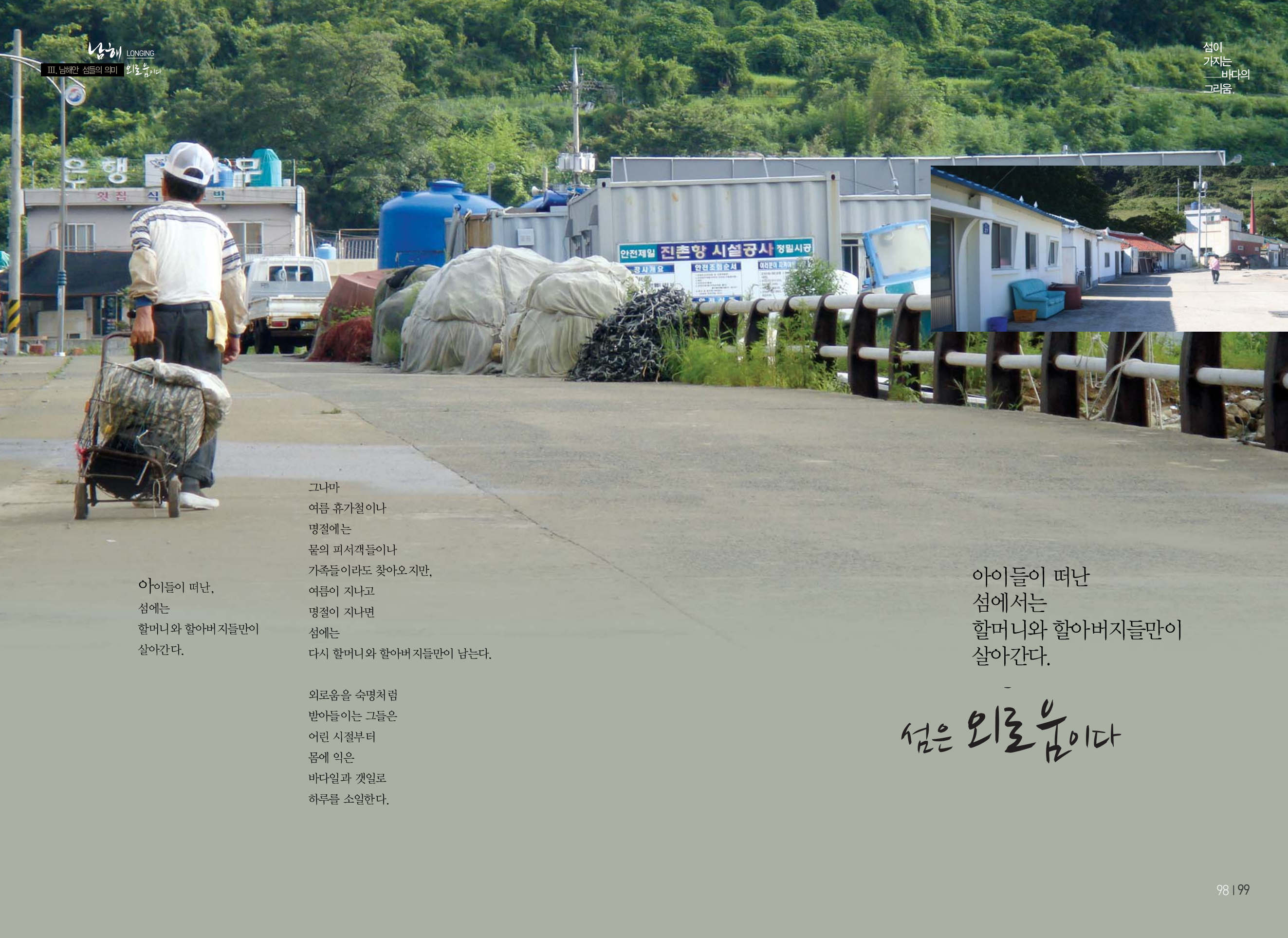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에게는
섬사람의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에,
보다 윤택한
삶을 위해,
섬을 떠난
섬사람들이
섬에 남겨둔 것은
폐교(閉校)¹⁾.

적막한 폐교에 들어서면
어디선가 꼬마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전설처럼
들려오는 듯하다.



섬은 외로움이다





아이들이 떠난,
섬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만이
살아간다.

그나마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에는
물의 피서객들이나
가족들이라도 찾아오지만,
여름이 지나고
명절이 지나면
섬에는
다시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만이 남는다.

외로움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몸에 익은
바다일과 갯일로
하루를 소일한다.

아이들이 떠난
섬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만이
살아간다.

섬은 외로움이다

섬은 외로움이다

섬에 사는 섬사람이
우두커니 서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본다.

딱히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그 무엇에 대한 갈망도 사라진 눈빛은
'공허'
'적멸'

섬은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진다.

섬은 외로움이다

섬의 외로움!

그래도 희망은 있다.

섬에서 자란,
섬에서 만난¹⁾
지인들과
함께
기울이는
한잔의 술

그동안의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토닥토닥
달래준다.

그동안의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토닥토닥
달래준다.

1) 전남 완도 전어축제

아직도

섬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섬의 지독한 외로움을
한방에
날려버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바다에서의,
갯벌에서의
힘든 삶의 무게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다.
연화도에서...

섬은
외로움이다





섬은 외로움이다

남해의 섬들은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이나
바위덩이의 모습이다.

섬의
형태는
참 다양하다.

몇몇 섬만을 제외한
남해의 섬들은
대부분 깎아지른 절벽이나
바위덩이의 모습이다.

한려수도에서 만난
육지 곁에 붙은 작은 섬은
바위 덩이에 송림을 이고 있지만,

통영
노대도 인근의 섬들은
겨우 몇 포기 of 풀들만이
밭 붙일 수 있는
절벽이다

1) 작은사진
2) 배경사진

Ⅲ. 남해안 섬들의 의미

남해의 섬섬섬

국토해양부 · 국립수산물과학원

섬은 삶이다

LIFE

섬에 쌓이고
또 쌓인 섬
그 곳에는
우리의 삶이 있다.

南海 島島島



섬은 삶이다

섬, 하면
가고 싶지만

섬에 가면
섬을 볼 수가 없다
지워지지 않으려고
바다를 꼭 붙잡고는
섬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를 수평선 밖으로
밀어내느라 안간힘 쓰는 것을
보지 못한다

섬

안도현
(시인,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세상한테 이기지 못하고
너는 섬으로 가고 싶겠지
한 며칠, 하면서
짐을 꾸려 떠나고 싶겠지
혼자서 훌쩍, 하면서

섬에 한번 가봐라, 그곳에
파도 소리가 섬을 지우려고 밤새 파랗게 달려드는
민박집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한번
섬이 되어 앉아 있어봐라

삶이란 게 뭐가
삶이란 게 뭐가
너는 밤새도록 뜬눈 밝혀야 하리

따사로운과
평화로움으로
섬 마을은
어디를 둘러 봐도
또 다른 섬들만
존재할 뿐이다.

섬은 ^{사람}이다

섬에 쌓이고
또 쌓인 섬.
그 곳에
우리네 삶이 있다.

반농반어¹⁾의 삶
우리 어촌 마을은
'선창', '언덕배기 밭'
그리고
사방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채꽃 언덕을 등지고
수터분한 어촌 마을이
자리 잡고,
그 앞의 작은 바다는
또 다른 섬들로
큰 바다와
나누어 진다.

그 작은 바다일지언정
섬사람들에게는
소중한 터전이기에
작은 가두리 양식장이
자리하고 있다.



섬사람들에게
가족은
물에서 보다
더 애뜻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섬 생활
더구나 바다에 나가면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부인,
삼촌과 조카
서로에게 더욱 절실한
삶의 동반자가 된다.
그런 삶이 바로 섬이다.



사진 | 박진일

섬은 **사람**이다

섬은 구름을 이고,
구름은 섬을 덮고.....

남해 연화도
끝자락에 위치한 암초들 위로
구름이 흐르고 있다.

구름과 바다를
이어주는 섬들은
이미 갯바위 '꾼' 공들의 세상이다.

섬은 **사랑**이다



통영에서 바다로
달려가면
여러 섬들 중에서
소매물도(통영시)의 등대섬은
완만한 경사와
푸른 빛으로
우리에게
푸근함을 안겨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반대편은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이다.



썰물을 타고
쭉쭉 바닷물이 물러나면
푸른빛으로
우리를 감싸주던 등대섬은
큰 형님인
소매물도와
자갈길로 이어진다.

20여 년 전,
자갈길 건너
소매물도 구석진 끝자락에는
암수 한 쌍의
금슬 좋은 흑돔이 살고 있었지만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자취 감춰짐'을 당한 지가 오래다.



소매물도 자갈길

섬은 사람이다

섬과 섬 사이
또는
섬의 어느 부분에는
다양한 모습의 해변이
나타난다.

전남 가거도
섬 구석진 끝자락에는
애기 주먹크기만한
자갈들이 파도에 와글거 리는데
모래와 개흙질은
파도의 등쌀에 휩쓸려 가고
그나마
크고 무거운 자갈들만이
해변을 지키고 있다.

햇살과
물과
반짝임
자갈,
그리고
고요를 품고

여명에 일어나는
가거도의 자갈 해변.

섬은
햇살과
물과
반짝임
자갈,
그리고
고요를 품고 있다.

섬은 살아 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만큼의 평화와 즐거움을
가득채운

섬은

조용하고,
아름다우면서 평화롭다.

그러나,
그 속에는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의
활력이 숨 쉬고 있다.

그러한 활력은
여수 안도의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푸른 하늘과
흰 구름만큼의 평화와 즐거움을
가득채운
공을 차고 있는
동네 꼬마들의 고함과 움직임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섬은 **살**이다

그 예전의
풍요로움은
먼 옛날 얘기로만
전해져 간다.

섬은 삶이다



바다로
나가는
—어부의
삶이.

섬은
바다이고
바다는
섬의 삶이다.

한 달 중
겨우 10여일 정도만
가능한
물속 작업이지만
때에 따라
힘들게 잡아내는
힘든 '휘파람 숨'의 대가로
때로는
큰 전복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점차 바다 속에는
백화현상이 피져만 가고
해조류와 수산생물들로 가득했던
앞 바다,
그 예전의
풍요로움은
먼 옛날 얘기로만
전해져 간다.



물 때에 맞춰
홍합을 딴 날이면
온 집안 식구들이
홍합 까기에 동원된다.
어린 손자마저도...

앞 바다의
이러한 수산물은
식량이 되기도 하고
팔아서 돈이 되기도 하는
섬사람들의
중요한 자산이다.

섬은 **삶**이다

섬은 ^사랑이다

주의보만

내리지 않으면

어김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 선창을 떠나

바다로 나가는 어민들의 삶이

그리 녹록한 것은 아니리라.

여수 안도 선창에서

새벽녘 건진

그물의 고기들을 팔고

아침식사를 한 후

그날 오후

다시 그물을 놓기 위해

손질하는 부자(父子)의 모습.

갯 잡아온 멸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¹⁾
채반에 펼쳐진다.

멸치비늘과 끓는 물,
주변에 진동하는 비린내...
처음 마주한 이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광경이지만
섬사람들에게는
풍요와 기쁨의 현장이다.



1) 지속

사진 | 박진일



바다로
나가는
어부의
삶이.

사진 | 박진일

섬은 사람이다

건조장으로
멸치를 운반하는 노부부
살짝 데친 멸치를 실은 손수레
어르신 혼자 끌기에는 아루래도 벅차다.
뒤에서 밀어주는
늙은 아내 손길이
큰 힘이 된다.

남해의 섬들 사이사이에는
'하얀 바다'를 이루는
스티로폼¹⁾만큼이나
많은 가두리 양식장들이
존재한다.

가두리 양식장들에는
넙치, 참돔, 조피볼락²⁾같은
어류들이 양식되고 있으며,
양식어민들의 큰 걱정 하나는
여름~가을에 걸쳐 몰아치는 태풍의 엄습이다.

그러나...
남해의 수 없이 많은 섬들은
온 몸으로
태풍을 막아 주는
천혜의 방어막 역할을 해 주기에
섬사람들은
그 많은 섬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섬은 사랑이다

섬사람들은
그 많은 섬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1) 멍게, 굴 양식장의 경우
2) 우럭

섬 사람들이
감내해야 하는 '바다 일'이란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직접 나가서
낙엽보다 더 작은
고깃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물고기를 잡는다는 '일'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섬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질곡의 세월들인지?
섬사람이 아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아니,
어려움의 그 언저리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섬은 **살**이다

'바다 일'이란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다.

어획한 해산물을 짚어지고
돌아가는 섬 어머니의 표정을 통해서
섬 생활을
아주 조금
그나마 짐작으로
알아차릴 수나 있을런지...

섬은 **섬**이다

어획한 해산물을 짚어지고
돌아가는 섬
어머니의 표정을 통해서

섬은
고통이고
바람이다.

파도를 피해,
바람을 피해
위로, 골짜기로 올라가
자리를 잡은
섬사람들의 집이
섬 생활의
어려움을
말해 주는 듯하다.

섬들을

헤집으며 내달리는
모진 바닷바람을
막아내야 하는 섬의 삶은
벽과 지붕의 높이를
갈게 만들었다.

낮고 우직한 돌담과,
돌담과 맞닿은 지붕의 모습은
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섬은 **살**이다

섬을 이어주는 다리들로 인해
이제
섬들 사이의 왕래가 쉬워졌지만
아직도 많은 섬들에서는
오직 배를 이용해서만
섬을 드나든다.

전남 다도해의
작은 섬들은
대형 여객선의 접안이 불가능해서
작은 배에
사람과 짐을 싣고
바다에서
여객선을 기다리다가
여객선이 도착하면
사람과 짐을 옮겨 실으면서
섬과 섬,
섬과 물을
이어가고 있다.

섬은 삶이다

섬은 사람이다

다양한 운송수단들이
섬사람들의
삶을 운반해 준다.



비디오
나가는
어부의
삶이.

배는

섬과 섬을,
섬과 육지를
연결해 주지만
작은 섬 안에서는
다양한 운송수단들이
섬사람들의
삶을 운반해 준다

여수 사도에서
민박 손님들의
짐을 운반해 주는 손수레.
가거도의 가파른 언덕길에서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무한궤도 차량

섬은 **섬**입니다

섬에서의 삶이
'섬'과 '배'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섬과 섬 사이
물살이 약하고
고요한 바다 밑
키조개, 개조개, 개불 등등
우리 식탁을
즐겁게 해주는 해산물들이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식탁에서
키조개며 개조개를 먹을 수 있기까지,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을 무게의 납덩이를 차고
수심 30~40m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고된 삶의
잠수부가 있다.

수심 30~40m의 물속으로 뛰어드는
고된 삶의
섬의 잠수부가 있다.

깊은 물속으로 뛰어드는
잠수부들의 배는
다른 배들로부터
물속 잠수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전부 또는 일부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바다로
나가는
—어부의
삶이.

“우리 배아래 물속에는 잠수부가 있어요!”
라는 목청 세운 외침대신에
사용되는
이러한 ‘색상의 외침’은
섬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애절한 절규일 것이다.

깊은 바다 속에서
작업 중인 잠수부의 목숨은
오직 한 가닥
공기 호스에 달려 있다.

이 한 가닥 호스만이
칠흙같이 어두운 물속의 삶을
바깥세상으로 연결해 주는
유일한 끈이다.

섬은 섬 삶이다





섬 마을은
전형적인
반농반어¹⁾의 삶이다.
썰물이 되어
갯벌이 드러나면
마을사람들 모두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²⁾
다시 밀물이 되어
갯벌이 물에 잠기면
집 근처의 밭에서
농작물을 가꾼다.

1) 半農半漁
2) 거제도 병사

섬은 삶이다

물이 들어
갯벌이 잠기고 나면
섬사람들은
다시 주변의 밭으로 가서
고구마, 파, 마늘, 고추 같은
농작물을 가꾼다.

이러한
'섬 삶'의 반복은
마을의 큰 잔치 때나
명절 때가 되어야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진다.





틈틈이 키우고 가꾼
고추가
어느 섬 집 지붕 위에서
붉게 붉게 타고 있다.

특별한 재료가 아니고는
생선에서부터
갖은 양념에 이르기 까지
자신들의 텃밭에서 기른 것들로
식탁이 채워지기 때문에
섬사람들의 일상은
늘 바쁘기만 하다.



Ⅲ. 남해안 섬들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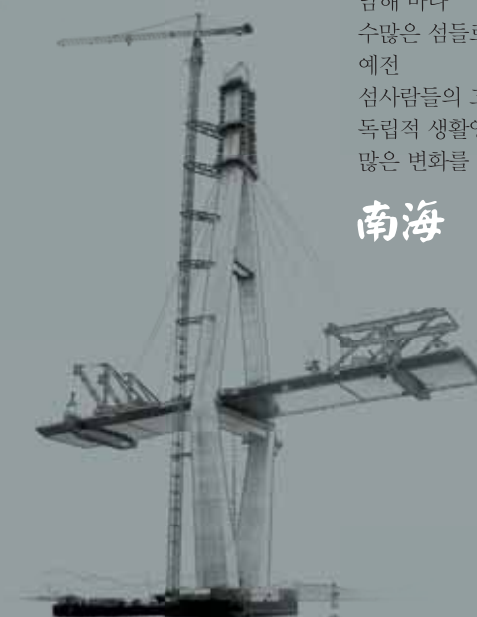
남해의 섬섬섬
국토해양부·국립수산물과학원

섬은 변화한다

CHANGED

남해 바다
수많은 섬들로의 손쉬운 접근은
예전
섬사람들의 고립과
독립적 생활양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南海 島島島



꽃게의 망명지

전기철

(시인 숭의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겨울 호도에서 절름발이와 살림을 차렸다.
무게를 더한 바람이 쉬었다 가는
해변민박 11호실에 절름발이를 두고
세상 밖으로 나가 버릴 듯이 뱃사람을 따라
먼 바다로 간다. 어둠 속에서
집어등이 켜지면 절름발이가 싸 준 따뜻한 손을
물속에 담그고 올라오는 꽃게를 뜯는다.
손끝으로 전해오는 짜릿한 소식에
육지에서의 회한을 하나씩 벗겨낼 때
밤을 잊은 알바트로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달은 파도를 따라 밀려왔다 밀려가고
와글거리는 회한이 기진해질 때쯤
어둠을 걷어내며 돌아오면
해안은 찢어진 가슴을 감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절름발이는
이불 속에서 구겨진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있다.
도망치다시피 온 호도
가끔씩 연락선이 깃발을 흔들어 아는 체 하지만
얼른 얼굴을 돌려 바다로 가야만이 맘이 편한
그해 겨울 호도
바람을 타고 끝없이
먼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고 싶지 않지만
생을 깨우기 위하여 돌아오고
돌아온 어느 날
절름발이는 한 마디 울음도 없이 사라지고
해변민박 지붕에는 노란 리본만 매달려 휘날릴 뿐
11호실은 영영 텅 비어 버렸다.

섬은 **변**화한다

남해의 많은 섬들은
이제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
연육교(連陸橋)로 연결되어
저룻배의 역할이
사라진 곳이 많다.

유채꽃 사이를 달리는
멋진 다리가
여수 금오도와 안도를
이어주고 있다.

남해 바다
수많은 섬의 소통은
예전
섬사람들의 고립과
익숙했던 홀로서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맑고 푸른
남해 바다의
— 변화
속에서.

섬은 *바뀔*한다

얼마 전 건설된
전남 고흥반도 끝자락의
늘썌한 다리가
섬들을 이어주고 있다.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눈에 보이는 지척의 섬들도
다녀 올 수 없던
섬과의 왕래가
이젠
잊혀가는 옛이야기가 되었다.

섬과 섬
그리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 공사가
한 참만에 끝이 났다.

남해 앞바다를 가로질러
육지와 주변 섬들을 연결하는
웅장한 모습의 거가대교가
섬 생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섬은 *변경*한다

섬과 섬
그리고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남해의 섬, 진도와
육지를 잇는 진도대교
아래처럼
배가 거슬러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센 물살이 이는 곳이 있다.

이러한 거친 물살도
그 성격과 경향을 알고나면
쓸모가 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거친 물살을 이용해
수많은 왜군과 맞서
승리를 거둔 곳이다.

섬은 **바뀐다**
이러한 거친 물살도
그 성격과 경향을 알고나면
쓸모가 있다.

아직도
수많은 섬과 섬들은
오직 배로만 이어진다.

섬은 *변경*한다



많은 섬과 섬들이

이미 더 멀리 연결되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소통하고 있다.

이것도

수 많은 섬과 섬들은

오직 배로만 이어진다.

섬과 섬을 연결해 주는 배는

역한이 달리서

지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쾌속선¹⁾과

자동차와 사람을 함께 싣고 떠나는 가케리²⁾

그리고

화물만을 운반하는 화물선³⁾이 있다.

1) 위 왼쪽 사진

2) 위 오른쪽 사진

3) 아래 큰 사진

가거도나 홍도처럼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도
이제는 드나들 엄두가 난다.

그래서
남도를 오가는
늘썌한 쾌속선이야말로
섬사람들의
아주 든든하고 빠른
발이 되어준다.

섬은
변경한다



섬사람들이 잡아올린
싱싱한 활어(活魚)들은
카페리를 타고
육지의 상인들에게 판매되어
많은 육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섬이 제공하는 먹거리는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해 주는
카페리를 타고
신선함을 유지한 채
육지로 운반된다.





사진 | 박진일

섬들은
삶에 필요한
물자의 대부분을
육지로부터
공급 받는다.

이러한 생활물자나
필요한 물자들은
화물차에 실리고
다시,
화물차는 배에 실려
섬으로 들어온다.

섬은 변화한다

섬의 변화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로서
통신을
빼 놓을 수 없다.

현대의 섬 생활은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육지나 주변 섬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섬에 있는
통신중계시설은
더이상 낡은 모습이 아니다.



섬은 **변경**한다



섬의 변화가

섬사람들의 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섬주변의 바다에서도
섬사람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 중
석회질로 구성된
해조류가 만든
백화현상은
바다와 섬이
삶의 터전인 어민들에게
늘어만 가는
걱정거리의 하나다.



섬은 바뀔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꾸준한 수온상승과
해안개발로 인한

보름달물해파리



노무리입깃해파리

몇 해 전부터
섬 주변
해양생태계의 변화 중 하나가
해파리의 습격이다.
섬사람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것은
노무리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상승과
해안개발로 인한¹⁾
유생부착 기질의 증가가
해파리들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

1) 어린해파리 서식지

섬은 변경한다

해파리의 대량 출현으로
멸치를 잡으려고
애써 끌어올린 그물 속에
해파리만 가득 채우게 된다.

그물에 가득 찬
해파리의 촉수 독침에
잡힌 멸치가 상처를 입고
얼마안되는 멸치라도
해파리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멸치들이 이리저리 치여서
상품가치를 잃게 된다.



섬은 변경한다

해양생태계의 변화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이젠 익숙해져 버린
적조발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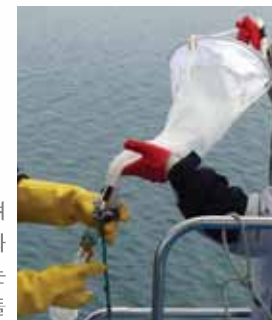
바다로 유입되는
육지의 오염물질이
차츰 차츰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름~가을이면
남해 바다는
적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섬은 변경한다

황토를 살포하여
적조생물을 해저로 가라앉히는

맑고 푸른
남해 바다의
— 변화
속에서.

▶ 적조예보를 위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종조성과
밀도를 조사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원들



어업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적조의 발생을
미리 어업인들에게 알려주려는 노력은
봄부터 가을까지
국립수산과학원의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예측 할 수 없는
짧은 시간에, 좁은 장소에서
또는 야간에 적조가 발생하면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황토를 살포하여
적조생물을 해저로 가라앉히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섬은 바뀔까 한다

맑고 푸른 남해 바다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적조에 대한
어민들의 두려움



맑고 푸른
남해 바다의
— 변화
속에서.



▲ 적조에 의해 폐사한 가두리 양식장의 참돔들

맑고 푸른 남해 바다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적조에 대한
어민들의 두려움은
늘 떨쳐버리기 어렵다.

밤새
기습적으로 발생한 적조가
양식장을 덮치게 되면
그 동안
밤낮없이 정성을 기울여 키운 물고기들이
한 순간에
모두 죽어버린다.

섬은 *변경*한다

섬의 오염은
비단 섬을 방문한
육지사람들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섬 마을
해변의 곳곳에는
육지연안
또는 인근 섬
아니면, 그 섬에서
바다에 버려졌다가
파도에 밀려 온
다양한 어구(漁具)와 생활 쓰레기들이
섬 주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여가활동과 기쁨을 위해
낚시를 하면서 일으키는
오염이 만든 변화는
고스란히
섬사람들의 가슴에
안타까운 환경의 변화로
아프게 남는다

섬의 변화 중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변화도 있지만
일부 변화들은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막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섬과 육지가 연결되면서
또는 섬과 섬들이 연결되면서
섬의 많은 갯바위들에는
육지의 낚시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섬은 *변화*한다



한가롭던 섬마을이
인구가 밀집된 소도시¹⁾로
변화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연안 개발과 매립을 통한
섬의 지형 변화는
많은 문화적 변화도
가져오게 된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지 않던 섬 실업살이에
도시화에 따른
경제적 장점은 있지만,
예전의
고즈넉한 섬 생활을
이젠
찾아 볼 수 없다.

섬은 *변화*한다



사진 | 박진일

1) 거제의 한 조선소

섬은 변경화한다

남해의 섬 중에는
모래의 섬도 있다.
바다에서 땅에서
이리저리
바람에 밀린 모래들이
사이좋게 한곳에 모이면
그 곳에는
모래언덕이 만들어진다.

전남 신안군 우이도에는
이렇게 바람이 만들어낸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사구(風成砂丘)가 있다.



맑고 푸른
남해 바다의
— 변화
속에서.



거제도의
한쪽 끝자락을 차지하는
구조라 해변은
맑고 고운 모래와
해수욕장으로 이름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간섭이 많은 해안은
바다 생물들이 살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한다.

Ⅲ. 남해안 섬들의 의미

섬은 문화다

CULTURE

섬이 갖는
환희와 애환의 역사
그리고,
섬이기에 가능한
섬만의 생활문화

南海 島島島

남해의 섬, 섬, 섬

국토해양부 · 국립수산물과학원



섬의 문화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섬이 갖는 희망과 애환
그리고,
섬이기에 가능한
섬만의 생활문화

여기에 근래에 들어
교통, 통신의 발달에 따른
육지 여가문화의 유입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현재의 섬에서 나타난다.

섬은 문화다



섬은 문화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섬은

외세(外勢)에 대한

‘지킴’의 몸부림이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

세월에 묻혀진

‘열부(烈婦)’의 이야기가

섬 언저리

풀숲에 세워져 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의 섬은

외세(外勢)에 대한

‘지킴’의 몸부림이었다.

양이침범 비전즉화

주화매국 계야만년자손

병인작 신미립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우리들의 자손만대에게 경계하노라,

병인년에 글을 짓고

신미년에 비를 세우다.

부산 바로 곁,

이제는

거가대교로 물과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가덕도

섬마을 입구에 세워진 비문(碑文)에서

섬사람들의 역사와 문화가 배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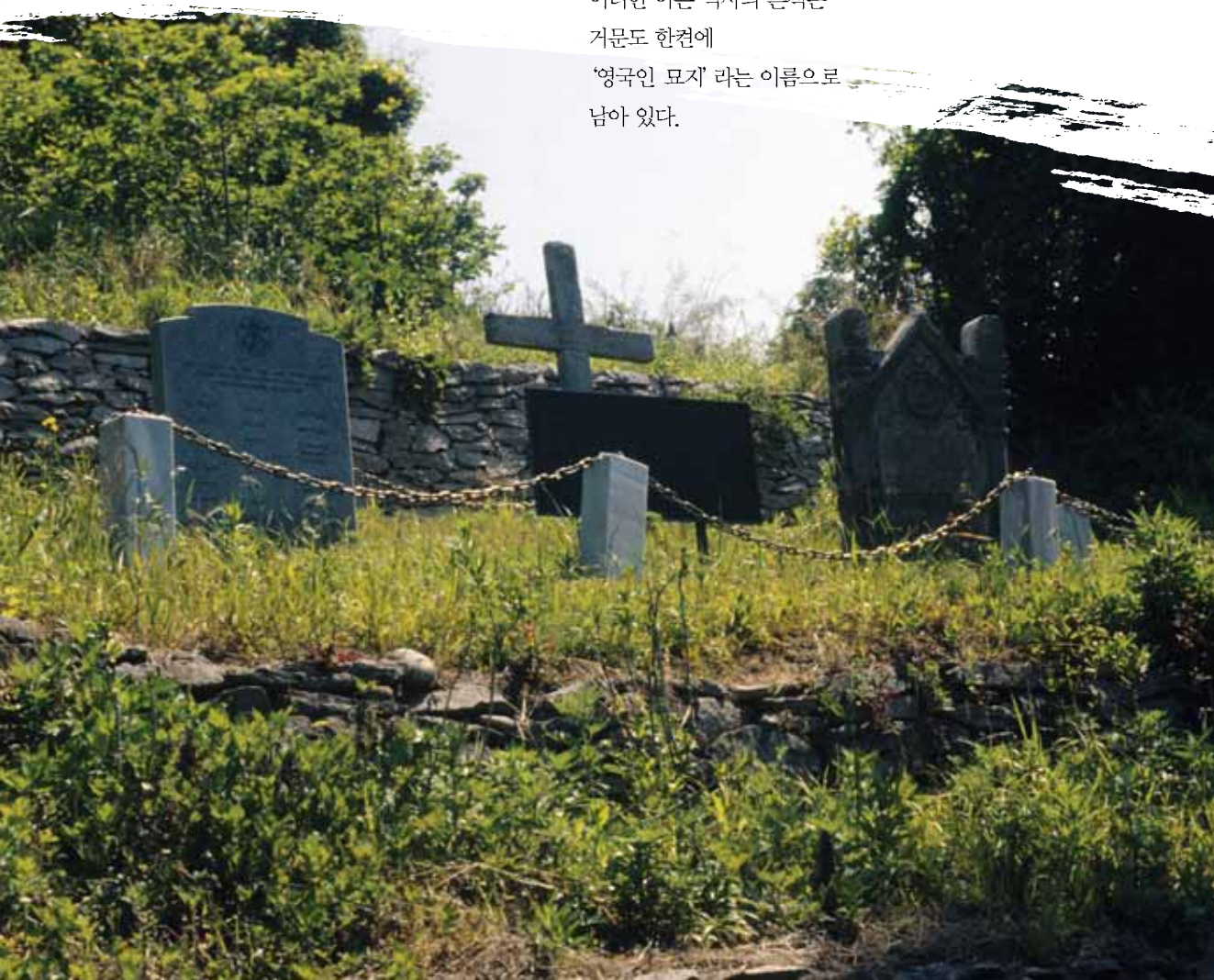


그곳엔
한희와
—애환의
역사가.

남해의 섬들은
과거 한 때
남쪽 바다를 거쳐
신대륙을 찾는
서구인들의 탐험과 탐사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세상 움직임에 둔감했던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의 섬 한 부분을
외국인들에게 빼앗기기도 했다.

지금도
이러한 아픈 역사의 흔적은
거문도 한켠에
'영국인 묘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섬에는
다양한 숨김이 새겨져 있다.

남해 끝자락
천남 보길도의 끝속한 곳에서
만나게 되는
고산 유취도가 머물렀던
세연정(悠然庭)¹⁾
우거진 숲 사이의 정자와 연못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섬의 문화사(文化史)적 가치가
깊이 느껴진다.

섬은 문화다

1) '눈에 보이는 것 깨닫지 못한 것'이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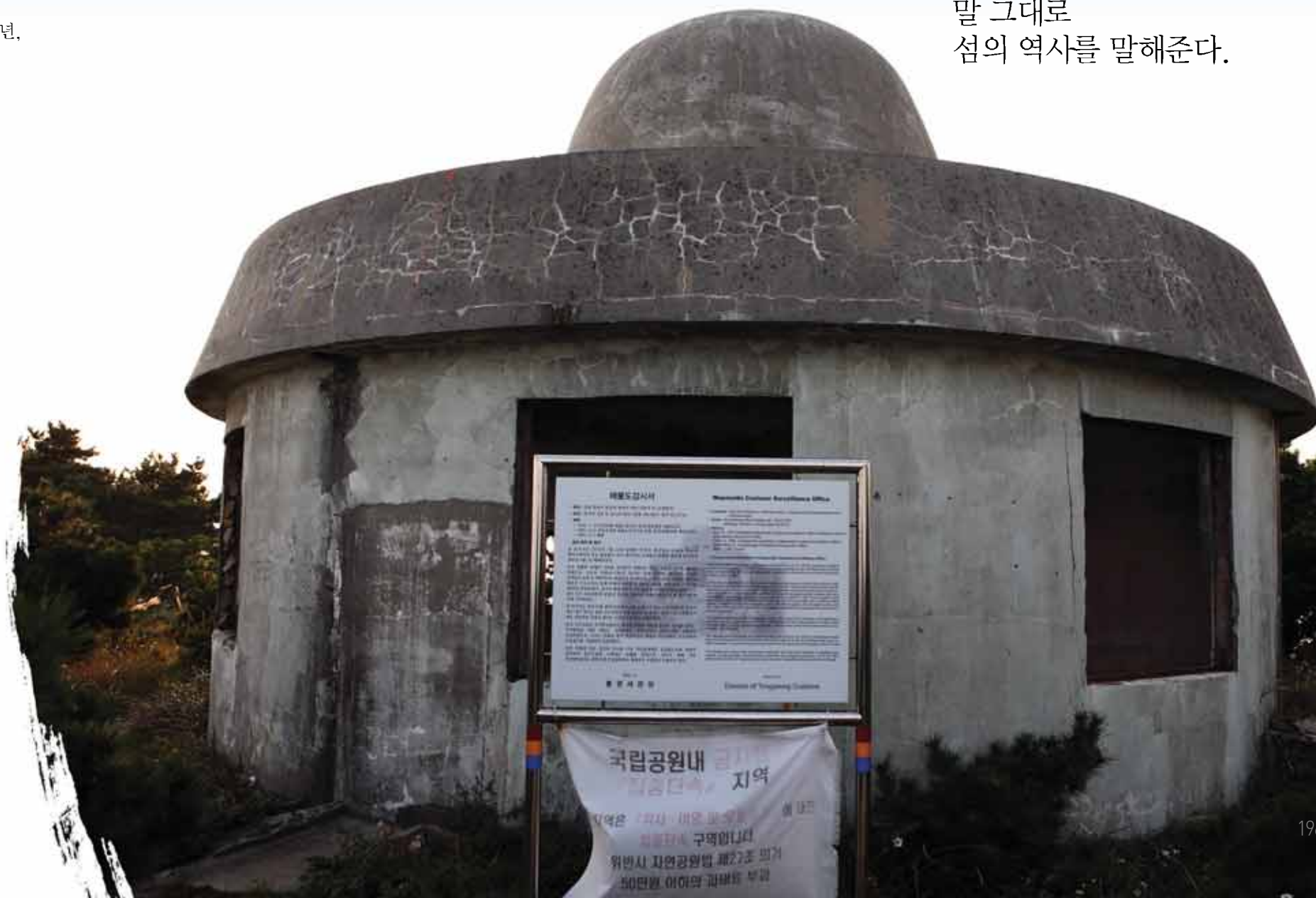
섬에 존재하는
오래된 유적들은
말 그대로
섬의 역사를 말해준다.

유적이라고 까지 할순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한창이던 1978년,
남해의 섬들 사이를 지나
육지로 들어오는
밀수선박을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소매물도 정상에 세워졌던
밀수 감시소는
약 10여 년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1987년 폐쇄되었다.

지금은
감시소의 역할을 설명하는
안내간판과 빈 건물만이 존재할 뿐
남해 섬의 끝자락에서
밀수선을 찾아내던
감시소의 이야기도
섬의 역사 속으로
잠겨 버렸다.

섬은 문화다

오래된 유적들은
말 그대로
섬의 역사를 말해준다.





우뭇가사리(전초)



다시마

섬은 문화다

섬에서 볼수있는
또 하나 독특한 모습이
수산물 의 '도로 점령' 이다.

바다에서 건져 낸
우뭇가사리와 다시마들이
도로 한 부분을 가득 채우고
햇볕에 말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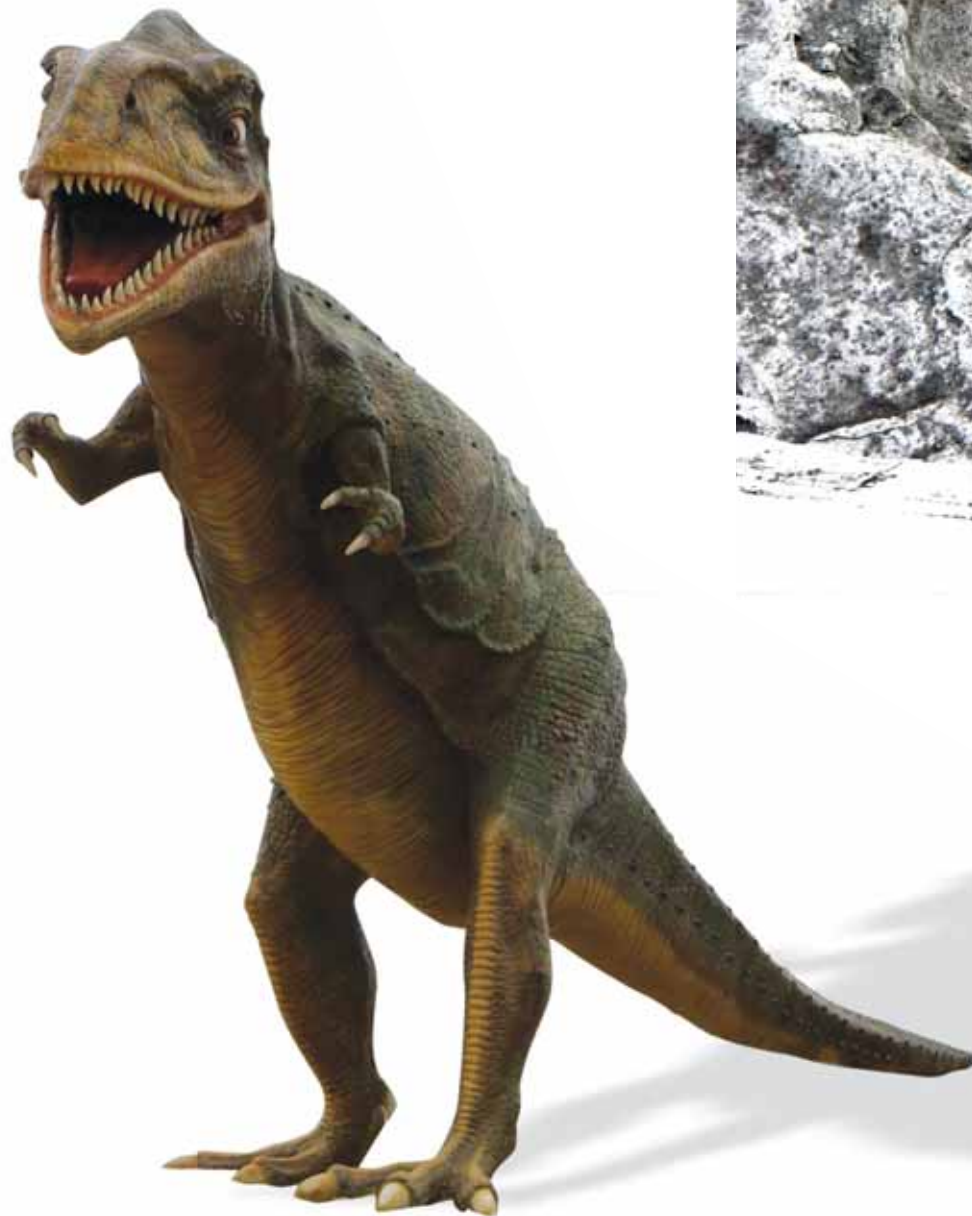
섬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수산물을 다듬으면서
누가 잡아올렸는지
개념치않고
수산물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인다.

이미 섬사람들의
문화에는
수산물 '도로점령' 이
굳어져 있는 듯하다.

남해의 섬에는
공룡이 있다.

먼 옛날
그 어느 과거에
사도¹⁾의 해안을 거닐던 공룡이
자신들의 발자국을
물 빠진 갯벌에 돌로 남기고
사라졌다.

섬은
우리의 상상 너머의
과거를 이어주는
지구의 역사도
품고 있다.



그곳엔
현화와
—애환의
역사가.

섬은 문화다

우리의 상상 너머의
과거를 이어주는
지구의 역사

섬은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다.

섬은
섬이 갖는 지리적 특성 상
사통팔달(四通八達)로
내 달릴 수 있기에
남해 바다의
서쪽 끝자락에서 만나는 가거도에는
섬이 바라보는 나라들의
방향과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섬은 문화다





섬은

이제 세상과 단절된
예전의 섬이 아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섬을
도시의 삶을 벗어나고픈
다양한 계층의
안식처이자 휴식처로
탈바꿈 시켰다.

비록 섬 자체의 젊은이들은
떠나 버렸지만
도시의 젊음에 의해
다시, 섬은
활기를 찾는다.

섬은 문화다

그곳엔
한희와
—애환의
역사가.

섬, 축제,
축제의 문화다.

섬에서보다
육지의 축제가
사람들의 발길을 더 잡아 당긴다.

그러나,
육지의 축제가
관(官) 주도의 만들어진 축제라면,
섬의 축제는
섬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레 녹아난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이다.

그리 비싸지 않은
전어 몇 마리가
연탄불에 익어가는
원도의 전어축제는
마냥 시끌벅적 하기만 하다...

섬이 춤을 춘다,
그속에서.



반농반어¹⁾의
고달픈 섬 생활들이
문화적, 자연 체험공간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거듭나면서
섬의 주말이 달라지고 있다.

섬의 일상에는
찾아보기 어렵던
유치원 꼬마들의 바지락 캐기 체험이
잠시나마
섬마을을
활기차고 젊게 만든다.



그곳엔
한희와
—애환의
역사가.



섬은 문화다

섬이,
섬의 해변이
순수하게 보전된다면
섬은
아이의 웃음처럼
늘 행복하리라.

섬을,
섬의 해변을
보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의 웃음에 있지 않을까?



섬은 문화다

남해의 어느 섬에서

만난

‘예쁘게 단장 된

해녀민박집’의 전경이

결의 투박한 돌담과 어우러져

더욱 정겨워 보인다.

아마 해녀(海女)는

심중팔구

예순을 넘은 할머니겠지만...

가족들과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이런저런 해산물 반찬에

투박한 해녀 할머니의 구수한 얘기들을 들으면

섬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오래 동안 남으리라.

전통적으로

반농반어¹⁾의 삶을 살아왔던

섬사람들에게

요즘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민박과 같은 서비스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²⁾.

남해의 섬,

그 어디를 가도

민박집을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으며

봄~여름철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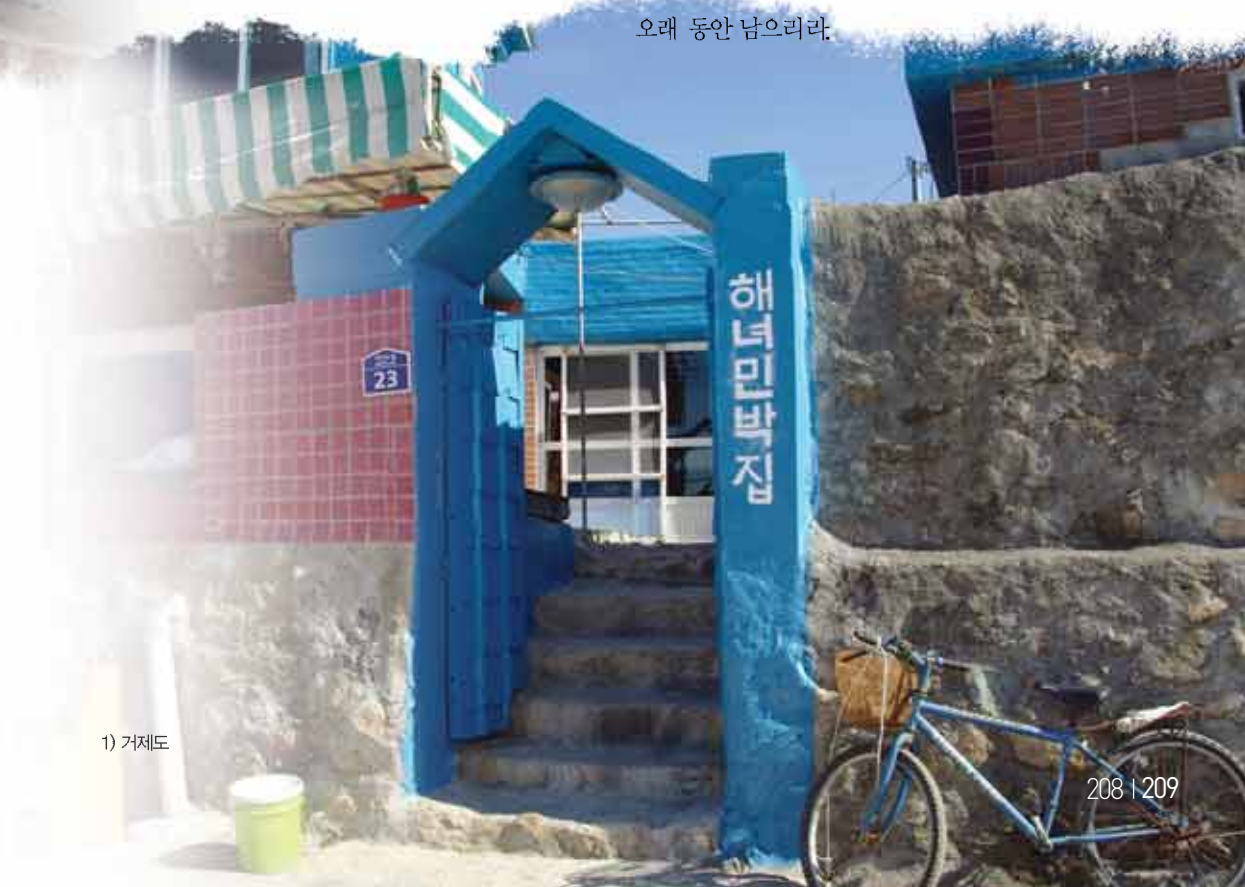
민박손님들의

썸썸이가

농업이나 어업에 비해

훨씬 큰 소득을

안겨주고 있다.



1) 半農半漁
2) 가거도

1) 거제도

남해의 섬 중에서
가장 서쪽을 지키는 섬이 가거도다.

목포에서
쾌속선 뱃길로 4시간,
멀고도 먼 섬이지만
그 속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아기자기한 섬사람들의 삶이 있다.



섬의 변화는
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돌길, 숲길이 좋은 이들과
안전하고 편리한
나무 계단이 좋다는 이들이
함께 나아가면서
섬, 길에도
변화가 생겼다.

소매물도 등대섬 길은
섬과 하늘과 바다의 기분에 따라
어디를 선택해도 운치가 있다.

섬은 문화다

섬은 문화다

어느 섬마을의 풍경에서
점차 변해가는
섬과 섬사람들의 삶

섬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느 섬마을의 풍경에서
점차 변해가는
섬과 섬사람들의 삶을
읽을 수 있다.

과거 흔히 보았던
지붕과 맞닿은 돌담,
바람을 이기기 위해
지붕에 얹었던
우직한 동아줄 더미와 돌덩이들.

이제 이런 모습들 대신
멀리서 바라보는
섬의 모습은
펜션과 상가 건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섬은 문화다

섬과 섬사람들의 변화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세월의 흐름이다

남해의 섬들 중
몇몇 섬들은
불과 5년 전의 모습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섬사람들의 실림살이에
보탬이 되던
소박한 민박집은
외지인(外地人)이 투자한
번듯한 펜션들 속에
흔적도 없이
묻혀 버렸다.

그러나,
섬과 섬사람들의 변화는
누구나 받아들여야 하는
세월의 흐름이다

Ⅳ. 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바다 저 멀리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섬.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섬은 저마다 오랜 역사와 사연을 지니고 있다. 지석묘, 조개 무덤, 고인돌, 토기 등의 유적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섬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해안의 작은 섬들이 그 이름을 갖기 시작한 것은 조선 세종 때부터라고 하는데 이는 군이나 관아에서 쓰던 말을 키우는 목장으로 섬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섬은 역사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군사전략기지이자 해상무역을 하던 무역항이었다. 또한 정치적 다툼에 희생된 선비들이 유배되면서 섬은 문학과 학문의 요람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구 열강들이 전쟁을 위한 군사거점 기지로 삼는가 하면, 일본 강점기에는 우리나라 연안 수산물을 수탈하기 위한 포구로 이용되는 등 섬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대변하기도 한다.

수산자원이 풍부했던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남해안의 섬은 그야말로 어업의 전진기지로 황금어장을 일구었다. 그러나 대형어선들의 마구잡이 어업활동으로 점점 어자원이 고갈되고, 산업화로 섬사람들이 육지의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섬은 이제 대부분 노인들만이 남아 섬을 지키고 있다.

남해안은 자연공원법의 보호를 받아 자연환경이 잘 보존됐다. 그러나 최근 섬 개발, 연육교 건설 및 생태관광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섬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연육교가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면서 육지와 인접한 섬들은 더 이상 섬 고유의 특징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섬사람들 역시 천혜의 자연을 생산 활동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섬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곳이 아니다. 육지에 나가기 위해 오랫동안 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은 물론이고 해저까지 고속도로가 뚫리고 바다 위와 바다 밑을 설 새 없이 자동차가 달린다. 이런 추세라면 언젠가는 섬이란 개념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섬의 주변 바다도 역시 지구온난화로 생물들이 변화하고 있다. 언젠가는 지금의 바다와 다른 생물들로 채워질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지만 자연과 인문, 역사 등 모든 측면에서 섬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는 미래는 있을까? 사람들이 찾는 고향과 같은 청정한 자연과 느림의 문화를 가진 섬의 가치가 영원하길 바란다. 남해안의 섬은 생명, 삶, 변화와 문화, 그리고 외로움의 정서를 간직한 채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남해안의 아가자기한 섬들을 둘러보며 그 안에 살아 숨 쉬는 다양한 생명들의 속삭임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시길...

테마가 있는 섬이야기

남 해 South Sea of Korea

2011년 2월 22일 발행

저자 국립수산물과학원
서영상, 임월에, 윤석현, 강영실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손민호, 김대익, 손명백

지문 섬문화연구소
박상건

편집 국립수산물과학원
임월에
해양생태기술연구소
손민호

발간 국토해양부
한기준, 김남원, 황순덕

발행처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생태계조사사업단
부산광역시 가장동 기정읍 기정해안로 216
Tel. 051-720-2223 / Fax. 051-720-2225

참고문헌 김준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게 취하는 섬 여행
박상건, 주말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섬 여행

디자인·인쇄 메이플디자인
Tel. 051-257-0302
E-mail, mapledesign@naver.com

도서출판 메이플 : ISBN 978-89-963604-5-7 96520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부조리신고센터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부실공사를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부조리신고센터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감찰팀

전화상담 TEL. 02-2110-8045 FAX. 02-504-9146

※ 신고인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됩니다.